

음향 프로 제작기

-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미스터리한 녹화 현장을 찾아가다!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우리 동네 음악대장’, ‘성대천하 유아독존 동방불패’ 등 재치 있는 가왕의 이름만큼이자 즐거운 녹화 현장을 자랑하는 MBC 간판 인기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015년 2월 파일럿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은 출연자들이 가면을 쓰고 등장,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기고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뽐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투표로 대결 상대가 결정되는 경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TV로 송출되는 방송 음향부터 현장 PA 사운드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제작 과정은 크게 ‘프로그램 녹화’ - ‘공연 믹스’ - ‘방송 믹스’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실시간 연주되는 라이브 밴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관객과 달리, TV를 통해 공연을 듣는 시청자들을 위해 조금 더 양질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공연 믹스’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있다. 이후 프로그램의 최종 편집이 끝나면, ‘방송 믹스’ 과정에서 박수 소리나 함성을 추가하여 조금 더 풍부한 현장감을 만들어 방송에 송출한다.

결과가 미리 노출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전에 미리 신청한 방청객과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들어가 볼 수 없는 스튜디오 현장.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미스터리한 복면가왕 녹화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복면가왕 리허설 현장

음악 프로그램으로서의 복면가왕은...?

‘프로그램 녹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오디오 작업 과정이 그러하듯이, ‘소리의 올바른 수음 및 레코딩’이다. 아무리 좋은 플러그인을 쓰고, 아무리 훌륭한 아웃보드 장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미 손실된 소스로 좋은 믹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복면가왕은 ‘좋은 소리를 수음하고 레코딩하기’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마이킹(Miking)’이다. ‘마이킹’이란 소리가 작은 악기 혹은 악기와 연결된 앰프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적절한 레벨로 원음을 수음하는 방법을 뜻한다. 복면가왕은 드럼을 필두로 베이스, 기타/ 키보드/ 브라스/ 스트링/ 멀티악기로 이루어진 밴드가 라이브 연주를 하게 되는데, 각각을 어떻게 마이킹하고 소리를 수음하는지 살펴보자.

드럼 마이킹



드럼 사전 셋팅 모습. 악기 소리가 정확히 픽업될 수 있도록 디렉션에 초점을 두고 마이킹한다

타악기의 대표주자인 드럼이다. 가장 먼저, 맨 위에 설치되어 있는 오버헤드 마이크는 드러머 머리 위에 설치하여 드럼의 전체적인 엠비언스를 수음한다. 풍부한 저음을 자랑하는 킥(Kick)에는 구멍을 뚫어 마이킹하고, 적절한 어택감과 저음을 수음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마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네어(Snare)는 주변 하이햇 소리가 많이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마이킹하고, 샤우링 소리를 수음하기 위해 추가로 아래쪽에 마이크(Snare Bottom)를 설치한다. 특히, 주변에 탐 드럼들과 붙어 있기에, 카디오이드 패턴의 마이크로 정확하게 수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Tom)도 스네어와 비슷한 모양으로 마이킹하되, 주변 소리가 많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햇(Hi-Hat)을 비롯하여 라이드(Ride), 크래쉬(Crash) 등의 심벌에도 마이크를 설치하여 따로 수음한다.

드럼은 음압이 굉장히 크다. 1미터 거리에서 120dB를 넘는 경우도 많고, 바로 가까이에서는 140dB 이상 올라가기도 한다. 따라서 드럼 마이크는 상당히 큰 음압을 클리핑(Clippling, 원음이 깨지는 현상)없이 수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라스 마이킹

브라스는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총 3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직접 장착하여 마이킹 한다. 드럼과 마찬가지로 악기의 음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음압에도 소리의 변형 없이 깨끗하게 원음을 수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브라스 세션의 모습과 색소폰 마이킹 모습

기타/키보드 마이킹



기타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 키보드의 경우 동일한 소스를 현장 PA와 부조로 동시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DI를 거친 후 콘솔을 통해 두 곳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일렉기타나 베이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앰프에 마이킹을 해서 소리를 수음할 것인지, 아니면 앰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콘솔로 수음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물론, 콘솔로 바로 수음할 경우에는 DI BOX가 필요하다.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에는 DI BOX를 사용하여 수음하는데, 기타의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소리가 나오는 사운드홀을 중심으로 마이크를 설치한다.

키보드는 총 2대를 사용하고, DI를 거쳐 수음한 뒤, 스플리터(혹은 콘솔)를 통해 분리된 소스를 받는다.

스트링(현악기) 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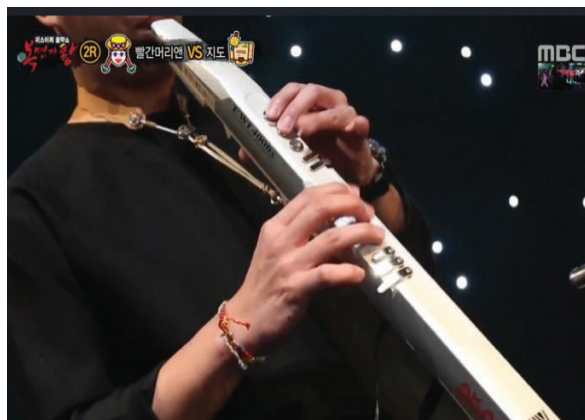
스트링 세션은 바이올린 3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가 얇고 작기 때문에, 올바른 마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악기 마운트용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소리를 수음하고, 바이올린부터 비올라, 첼로도 동일하게 셋팅한다. 핀마이크로 수음함으로써, 악기에 아주 가깝게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고, 피드백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악기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첼로는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기 때문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악기의 위쪽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첼로는 악기의 아래쪽에 마이크를 설치하게 된다.

멀티악기 마이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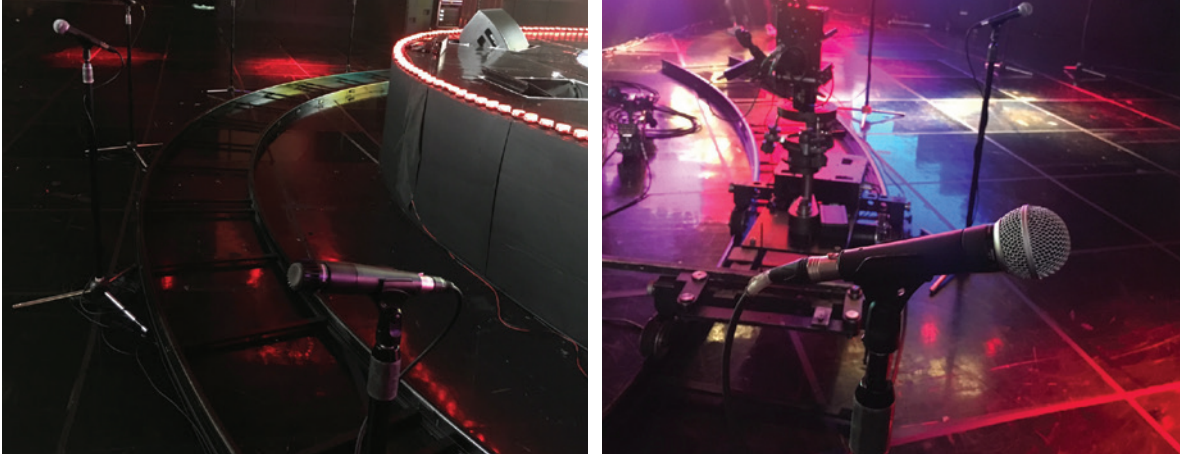
멀티악기는 곡마다 다른 악기가 사용되는데, 플루트나 하모니카가 주로 쓰이고, 아이리쉬 휘슬이나 아코디언 등의 악기도 사용된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스탠드 마이크 수음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리를 최소화하여 수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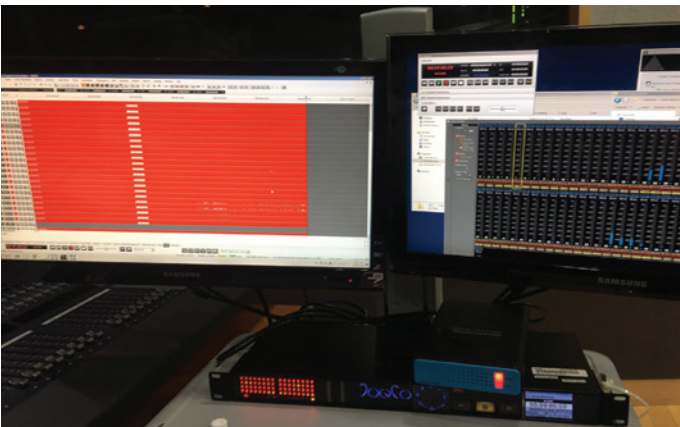
실제 사용되었던 특수 악기의 모습 및 멀티 악기(아코디언, 하모니카, 플루트) 셋팅 모습

코러스 및 관객 수음용 마이킹

경연곡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코러스와 관객 수음을 위한 마이크도 설치한다. 엠비언스 마이크(관객 수음용 마이크)는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고 관객들의 박수소리 및 함성 등 경연의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경연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소스 중 하나이다. 특히, 가면을 벗는 무대 뒤쪽 공간에도 따로 엠비언스 마이크를 설치하여, 현장의 긴장감과 당시 관객의 리액션을 더욱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엠비언스 마이크의 경우, 공간을 결정하는 마이크와 박수 소리 및 함성을 위한 마이크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마이킹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함성과 동시에 공간의 규모/현장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라믹스에 소리 레코딩되는 장면

이렇게 수음된 소리들은 부조정실로 전달되어 '피라믹스(Pyramix)'를 거쳐 녹음된다. 복면가왕은 프로툴즈(Protools)가 아닌 '피라믹스(Pyramix)'로 작업을 하는데, 손실되는 음질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오디오 퀄리티를 만들기 위함이다.

예능프로그램으로서의 복면가왕은...

복면가왕이 MBC 간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음악적인 요소와 함께 웃음의 요소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복면가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음향 요소들을 살펴보자.

출연자의 정체를 꼭꼭 숨겨라

복면가왕의 취지인 '오직 목소리만으로 승부하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변조일 것이다. 출연자의 정체를 숨겨주기 위해서 변조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변조를 빼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는 개인기 부분은 판정단과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공연 믹스하는 모습



부조에서 녹화하는 모습

판정단의 숨소리까지 캐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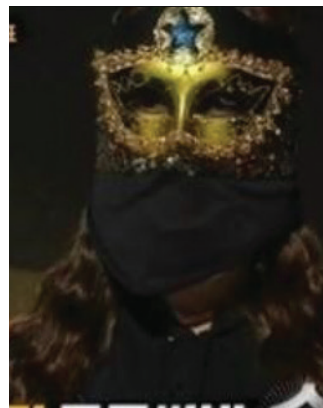
복면가왕의 중요한 예능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판정단들의 '말말말'이다. 판정단들은 출연자의 정체를 예측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데, 핸드 마이크를 메인으로 사용하되, 핀마이크를 따로 달아주어, 공연 중간 리액션이나 출연자의 정체를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멘트들을 '방송 믹스' 단계에서 함께 넣어준다.



왼쪽 핀마이크와 오른쪽 핸드마이크

복면의 변천사

복면가왕의 트레이드마크인 복면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는데, 이는 올바른 오디오의 수음을 위해서 변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복면이 출연진의 외형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오디오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입을 막는다는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경연 프로그램으로서 노래가 중요시 되는 만큼, 파일럿 때의 복면(하단의 그림 참조)을 보면 입 부분을 과감하게 뚫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리를 100%로 깨끗하게 수음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출연진의 정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정규 편성 후에는 복면의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얇은 막의 형태로 진화(?)함으로써, 음향적인 요소와 예능적인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파일럿 당시의 복면 모습과 정규 편성 후 1회 때의 복면 모습, 현재 복면 모습

음악프로그램 + 예능프로그램 + 진정성 =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출연자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이다.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추측을 한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할 경우, 청중과 판정단, 그리고 시청자는 모두 깜짝 놀라게 된다. 특히 편견을 가질 경우, 그 충격은 더욱 배가 되는데, 이러한 충격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복면가왕에서는 바로 오디오다. 변조를 통해 정체를 숨겨주다가도, 오히려 공연에서 그 숨겨진 정체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복면가왕은 한때 가수가 되고 싶었던 개그맨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가수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한 아이돌 가수의 열창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편견을 버리고 오디오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함께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실 된 소리를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nterview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음악쇼, 복면가왕!

박수지 MBC 음향 제작부 사원

복면가왕 녹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복면가왕은 녹화 전날부터 제작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2편을 하루에 찍다 보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녹화 전날,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패치 및 콘솔을 점검하고, 출연자들의 개인기에 따라 특별히 구성해야 하는 오디오 신호들을 정리합니다. 노래방부터 오고무, 토이 드럼, 탭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개인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수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간구하고, 준비해 놓는 작업을 합니다.

녹화 당일에는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후에 본 녹화를 들어가게 되는데, 드라이 리허설 전에는 간선 체크와 악기 체크 총 두 번의 신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 체크 없이, 바로 악기 체크를 진행하게 되면 노이즈 발생 시, 악기에서 발생한 노이즈인지, 라인에서 발생한 노이즈인지, 스피리터에서 발생한 노이즈 인지,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선 체크를 먼저 진행하여 라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악기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없이 소리를 수음하고, 클리핑 없이 적절한 게인으로 레코딩하기 위해서 신호 체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노이즈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세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악기의 세팅이나 마이킹은 외부 협력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조정실에서는 스튜디오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마이킹 위치나 디렉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업체와 조율하여 가장 최적의 녹화 환경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드라이 리허설과 카메라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모든 신호를 피라미스를 통해 레코딩합니다. 공연 믹스 시, 본 녹화 때 연주되었던 소스를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악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수가 등장할 경우, 드라이/카메라 리허설 때 연주했던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악기가 잘 레코딩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레코딩 된 모든 소스는 녹음실로 전달되어 '공연 믹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음은 출연자의 메인 마이크일 텐데요. 보다 고품질의 사운드를 위한 작업이 있다면요? 추가로, 언급하신 '공연 믹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컬 수음을 위해 젠하이저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 프로그램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클리핑(음원이 깨지는 현상) 없이 원음 그대로 수음하기 위해서 마이크 헤드를 다른 모델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젠하이저 MD 5235가 그 헤드인데, 외국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조합(SKM 5200 + MD 5235)으로, 많은 시상식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젠하이저 MD 5235 캡슐(헤드)은 낮은 음역부터 높은 음역까지 넓은 음역대를 커버할 수 있고, 강약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잘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어, 오디오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더 나은 조합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 믹스는, 사실 녹화 현장과 소스의 상태, 출연자의 실력에 따라 매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라 믹스'라는 DAW를 사용하는데, 손실되는 음질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피라믹스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악기별로 모든 소스를 트랙에 올리고, 각각의 상태에 맞게 COMP와 EQ를 사용하여 공연 믹스를 진행하는데, 곡마다 주(main)가 되는 악기가 다르기에 이를 생각하며 밸런스를 잡게 됩니다. 또한 음악의 장르에 따라 곡의 분위기도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하여 공연 믹스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보다는 원음을 최대한 깨끗하게 수음하고, 곡의 느낌을 살려 믹스하는 것이 복면가왕 공연 믹스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와 기타 수음 등 총 몇 채널을 사용하시는지, 장비 등 전체 규모와 인력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복면가왕은 라이브 밴드가 직접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 밴드의 규모에 따라 수음하는 오디오 채널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면가왕에서 연주하는 밴드는 퍼커션을 제외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드럼부터,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어쿠스틱기타, 키보드, 브라스, 스트링 세션, 멀티악기까지 40채널이 넘는 악기 채널을 수음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연용 보컬 마이크와 코러스 마이크, 패널용 핸드마이크, 관객 함성용 EFFECT 마이크까지 합하면 매회 기본적으로 오디오 채널수는 64채널을 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 현장 PA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협력업체가 따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몇 배로 많은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장비로 프로그램의 규모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래 공연을 위한 장비 외에 번조를 위한 장비가 부수적으로 사용되고, 현장 관객 300명을 위한 확성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복면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재미 요소이자, 출연자의 정체를 숨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면이 중간에 벗겨진다면(아,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출연자의 정체기가 탄로 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녹화에서 복면이 벗겨지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점쟁이문어'로 출연한 요리연구가 이혜정 선생님이 댄스를 추다가 그만 복면이 벗겨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 되었었는데, 다행히 순발력 있게 복면을 놓지 않으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조정실에서조차도 연출되지 않은 상황에 스탭 전원이 비명을 지르며 놀라했던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복면가왕이 경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가끔은 노래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 등장하여 프로그램을 더욱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 중, '팔방수'로 등장했던 서민정 씨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자'라는 목적으로 공연 믹싱을 하는 것과 달리, 서민정 씨 편은 '못 부르면 못 부른 대로, 있는 그대로 들려주자'라는 생각하에, 아무런 편집 없이 정말 부른 그대로 방송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연이면 반드시 노래를 잘해야만 한다는 편견도 깨고, 출연자의 긴장감과 설렘이 무대에서 그대로 표현된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엄청난 보안과 경호 속에 진행되었던 '유니콘' 라이언 레이놀즈의 무대도 재미있었고, 복면이 벗겨지기 전에 '굿걸' 한영 씨의 정체를 본인도 모르게 언급했던 김성주 MC의 당황했던 에피소드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프로그램으로서 복면가왕만의 특징으로는?

흔히 음악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 목소리만으로 그러한 감정을 끌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눈빛을 통해, 그리고 표정을 통해 진실된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면가왕은 오히려 복면으로 출연자의 얼굴을 감추고 표정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시청자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오디오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악기 연주와 아름다운 편곡은 기본이고, 얼굴, 키, 복장 등 외관상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편견을 깨고 오직 목소리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음악프로그램으로서의 복면가왕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복면을 쓰고, 피에로 옷을 입고 있어도, 진실한 목소리만 있다면, 청중의 눈물을 끌어낼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은 오직 복면가왕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